



성령이 온 누리에 | 정명오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교환예배  
(2000년~2019년)  
예배시간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경충단로 204(강충동 17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 경동교회 · 서울주교좌성당 교환예배

집전, 설교: 주낙현 요셉 신부

복음: 김대목 가브리엘 신부

M.C.: 황인호 요나단

성체보혈: (성체분배)주낙현 요셉 신부, 김대목 가브리엘 신부, 배영호 목사, 박선교 목사  
(보혈조력)문규옥 카타리나 위원

(1부)정대제 장로, 함천진 장로 (2부)최종학 장로, 조규곤 장로

성물: 안젤라 수녀

독서자: (1부)박기연 집사, 광대영 집사 (2부)이재형 집사, 강혜정(김) 집사

복사단: 김효민, 유현준, 한성현, 이서연, 김세운, 한서웅, 이지원, 한서화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박선교 목사

성가대: 성 세실리아 성가대

(지휘: 장지형 에스더, 오르간: 강혜승 에스더)

전례곡: 성공회 전례곡 C곡(이건용 곡)

## 개회예식

오르간 전주

강혜승 에스더

### 일어서서

(징이 3번 울리면 교인은 일어서서 입당 성가를 부르고, 예배위원들은 입장한다)

입당성가

310장(성령이여 오소서)

다함께



1 성령이여 오소서 하늘에서 내리사 환한빛을 주소서  
2 위로자여 오소서 내영혼에 임하사 새힘내려 주소서  
3 순결하신 빛이여 내맘속에 비추사 신실하게 하소서



가난한자 위하여 은총내려 주시고 마음밝혀 주소서  
주님그늘 밑으로 지친몸을 이끌어 쉼을얻게 하소서  
주님 떠나 가시면 나의뜻과 행실이 모두헛된 것일세

4 마른 영혼적시고 죄의 때를 씻기사 바른 길로 인도소서  
순종하는 마음과 새 희망을 주시어 소생하게 하소서

5 주님 믿는 나에게 성령칠은 베푸사 항상 지켜주소서  
크신 은총 내리사 하늘 기쁨 주시고 구원 얻게 하소서

정심기도

집전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함께: 아멘.

죄의 고백

**집전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통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한다.〉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집전자:**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다함께:** 아멘.

기원송가

영광송

다함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를 경배 하 오며 주께 감사 하 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 하 나 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 기 소 서 성부 오른편에 앉 아 계 시 는 주 여  
 우리 의 기 도 를 들 어 주 소 서 하느님 성부의



## 말씀의 전례

### 본기도

**집전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 이 세상과 사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어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비오니, 자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어 모든 억압을 이겨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미움과 다툼으로 갈라진 세상에 용서와 화해의 일꾼을 세우시어,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함께:** 아멘.

## 앞아서

### 1독서

창세기 11:1-9

1부: 박기연 집사

2부: 이재형 집사

**독서자:** 1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 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만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독서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함께:**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시

시편 104편

다함께



- 주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으나: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 | 없- | 고
-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 풍요 | 합니 | 다.
- 저 크고 넓은 | 바- | 다,
-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 우글 | 거리 | 고,
- 때를 따라 주시는 먹이를 기 | 다리 | 며
-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 쳐다 | 보다 | 가
- 먹이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 먹으 | 니,
- 손만 벌리시면 그들은 | 배부 | 립니 | 다.
-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 모르 | 고
- 숨을 거두어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 돌아 | 가지 | 만,
-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소 | 생하 | 고
- 온누리의 모습은 새 | 로워 | 집니 | 다.
- ◎ 영광이 | 성부 | 와 ○ 성 | 자와 | 성령 | 께  
처음과 같이 | 지금 | 도 ○ 그리고 영 | 원히, | 아- | 멘

2독서

사도행전 2:1-21

1부: 광대영 집사

2부: 강해정(김) 집사

독서자: 2독서는 사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 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셈인가? 이 가운데는 바르티아 사람, 메대 사람, 엘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프리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또 키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느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모두 놀라고 어안이 빙빙하여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하며 웅성거렸는데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때 베드로가 다른 열한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유다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각이 아침 아홉 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는 나의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표징을 보이며 땅에서 기적을 행하리니 피와 불과 질은 연기가 일고 해는 빛을 잃어 어두워지

# 경동교회 · 서울주교좌성당 교환예배

고 달은 피와 같이 붙어져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독서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함께: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증계성가

비둘기의 노래처럼.....

성가대

## 일어서서

복음환호송

다함께

(계)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오 소 서, 성령이시여, 신자들의 마음을 채 우 시 고,

주님 사랑의 불을 붙여 주 소 서,

(응)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복음서

요한복음 14:8-17.....

김대목 가브리엘 신부

(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응) 또한 부제(사제)와 함께 하소서.

(계)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 니 다. (응) 주님께 영광을 드 립 니 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나?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 읽은 후)

(계) 주님의 복음 입 니 다. (응) 그리스도를 찬미 합 니 다.

설교

주낙현 요셉 신부

일어서서

신앙고백

**집전자:** 우리는 믿나이다.

**다함께:**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토로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박선교 목사

**집전자:** †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 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와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회 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목 사:**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회 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목 사:**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회 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목 사:**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회 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목 사:**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회 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목 사:** 전능하신 하느님,

**회 중:**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

일어서서

평화의 인사

**집전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집전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다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집전자:**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 경동교회 · 서울주교좌성당 교환예배

봉헌성가

235장(즐거운 날 이 기쁜 명절에) .....

다함께

즐거운 날 이 기쁜 명절에 은혜로

운성령이 오셨다

1 고대하던 못신도들에  
2 신비로운 하늘의 선물  
3 사도들이 못 나라 언어

게예언대로 불처럼 내렸다  
을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  
로그리스도 끝없이 알렸다

D.C. al Fine

4 생명의 영 샘처럼 솟아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소서

봉헌기도

집전자: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다함께: 아멘.

공동 성찬기도

(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응)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계) 마 - 음을 드높이 (응) 주 - 님 - 게 올립 니 다

(계) 우 리 주하 느 - 님 게 감사 - 합 - 시 다 (응) 마 땅 하고 옳은 일입 니 다

(계) 오 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 니 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영원히 미치지 못할 빛 속에 계시 으며,  
생명의 샘이시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 나 이 다. 또 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으로 채 우 시 며, 경이로운 빛 가운데 기쁨을





기록하시다

다함께



**목 사:**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기록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며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간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사 제:**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목 사:**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 경동교회 · 서울주교좌성당 교환예배

**사 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느님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다함께:**



**사 제:**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목 사:**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구원하신 모든 교회, 특별히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어 두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화합하여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앞서 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 주의기도





성찬의 나눔

사 제: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다함께: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어린양

다함께



성찬의 초대

목사/사제 함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다함께: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앞으로 나와서

영성체

다함께

(배찬시 성체를 나누어 주는 이가 “그리스도의 성체” 하시면 성체를 받는 교우는 “아멘” 하고, 보혈을 나누어 주는 이가 “그리스도의 보혈” 하시면 성체를 포도주에 적시며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 경동교회 · 서울주교좌성당 교환예배

영성체 특송

오순절의 기도(이건용)

성가대

영성체성가

347장(한 빛에서 많은 빛이)

다함께

Em Am B7 Em Am G/D D7 G

1 한 빛에서 많은 빛이 나 오네 우리의 한 빛 예수  
2 큰 나무가 많은 가지를 뻗네 우리의 나무 예수  
3 이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지만 가장 큰 선물 사랑  
그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네 한 빛 예수  
나 무 예수  
사 랑 예수

4 우리 앞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의 참길 예수  
그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네 참 길 예수

5 교회 안에 많은 사람 있지만 우리의 주인 예수  
그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네 주님 예수

일어서서

영성체 후 기도

사 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축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의 은혜로써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회 중: 아멘.

파송예식

축복기도

(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응)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계) 일치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전 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 하소서 (응) 아 멘



파송

(계) 나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 합 시 다. 알 렬 루 야!

알 렬 루 야!

(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 렬 루 야! 알 렬 루 야!

앉아서

알리는 말씀

배영호 목사

일어서서

파송성가

304장(바람으로 오소서)

다함께

1 바 람 으 로 오 소 서  
2 이 름 비 로 오 소 서 주 여 오 소 서 우리 의 영 혼  
3 불 빛 으 로 오 소 서

나 못 가 지 에 무 성 한 잎 을 흔 들 어 연 약 한  
더 러 운 도 시 자 옥 한 먼 지 씻 으 사 찬 란 한  
감 감 한 세 상 낮 에 도 길 을 헤 댄 때 하 늘 의

열 매 에 햇 빛 을 비 추 는 성 령 의 바 람  
봄 빛 을 다 시 물 들 이 는 성 령 의 단 비  
빛 으 로 우리 를 이 끄 는 성 령 의 불 빛

바 람 으 로 오 소 서 바 람 으 로 오 소 서  
이 름 비 로 오 소 서 이 름 비 로 오 소 서  
불 빛 으 로 오 소 서 불 빛 으 로 오 소 서

오르간 후주

Pentecost (H. B. Gaul)

강혜승 에스더

## 알리는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생활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새교우 등록실(친교실 옆)을 방문해 주십시오.

### 1. 교우소식

- ▶공연: 정록기 집사(라이프찌히 바흐 페스티벌 출연 16일[주일], 21일[금] 독일)
- ▶출국: 이광택 집사(8일[토], 스위스, 불가리아) · 김정례 권사(8일[토], 독일, 터키)  
정록기 집사(12일[수], 독일)

### 2. 기도회

- ▶화요일침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

### 3. 모임

- ▶권사회: 오늘(9일) 1부 예배 후 소예배실
- ▶드보라2소화: 오늘(9일) 1부 예배 후 당회실
- ▶루디아1소화: 오늘(9일) 1부 예배 후 여신도실
- ▶중우회: 오늘(9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3호
- ▶여신도성가대: 12일(수) 오후 6시 소예배실
- ▶노아과이어: 12일(수) 오후 6시 30분 성가대실
- ▶마리아1소화: 다음 주일(16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3호
- ▶마리아2소화: 다음 주일(16일) 1부 예배 후 여신도실
- ▶드보라1소화: 다음 주일(16일) 1부 예배 후 당회실
- ▶청우회: 다음 주일(16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6호

### 4. 새교우 교육과 새교우 환영회

- ▶새교우 교육 일시와 장소: 오늘(9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 ▶새교우 환영회 일시와 장소: 23일(주일) 오후 1시 경동갤러리카페
- ▶대상: 2018년 11월-2019년 4월 예비등록교우
- ▶주관: 새교우위원회(위원장: 심정기 집사)

### 5. 구역장 및 구역인도자 모임

- ▶구역장 모임: 11일(화) 오전 11시 소예배실
- ▶구역인도자 모임: 12일(수) 오후 6시 당회실

### 6. 여신도 신앙수련회

- ▶주제: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 ▶강사: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일시와 장소: 13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본당, 장충단공원

### 7. 해외의료선교 첫 번째 준비 모임

- ▶일시와 장소: 다음 주일(16일) 1부 예배 후 여해문화공간
- ▶대상: 해외의료선교 신청자
- ▶주관: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이권희 집사)

## 8. 담임목사와 대화의 시간 - 장년회

▶주제: “Well Aging”

▶일시와 장소: 다음 주일(16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 9.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주제: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요”

(이사야서 11:6-9, 에베소서 2:14-18, 마태복음서 5:9)

▶일시와 장소: 다음 주일(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성남교회

## 10. 제1기 경동 에큐메니칼 장학생 선발공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에큐메니칼 리더 양성을 위한 ‘제1기 경동 에큐메니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발인원: 국내 · 외 장학생(\*신학대학원 재학생 이상) 각 1명

▶장학금: 국내-입학금을 포함한 매 학기 등록금 전액

국외-한 학기 최대 500만 원, 1년 최대 1,000만 원

▶접수기간: 6월 10일(월)-6월 28일(금)

▶문의: 에큐메니칼 장학위원회(위원장: 강승구 집사)

## 11. 다음 주일(6월 16일) 예배 위원

| 기도     | 성서봉독 |                 |  |    | 수요기도(6월 19일)                          |
|--------|------|-----------------|--|----|---------------------------------------|
| 조규곤 장로 | 1부   | 김진열 집사 · 이순희 권사 |  | 2부 | 신태광 집사 · 홍은주 집사 (아침)김필연 권사 (저녁)이권희 집사 |

### 특별봉헌 6월 2일

**감사헌금:** 강혜수(퇴임감사), 국혜자(하나님 은혜), 김정원(십일조), 김경호 · 이미경(아들 연일이 결혼), 김광영(은총), 김동준(3월 무사히 마치게 하심), 김병태 · 김수미(응답해주신 하나님), 김성식 · 김원희(승리의 길로 인도해주심), 김수평 · 임문규(범사), 김완숙(김정근 집사 생일, 김민정 승진), 김윤 · 김영하(주님 보살핌), 김정애(감사), 김종현 · 송승연(연주회 잘 마침), 김진희(감사), 김충열(여행), 문영일 · 박지호(감사), 박성호 · 도주희(선교), 박정숙(윤/사랑에 감사), 배영호(십일조), 서원식 · 장애란(십일조), 오성혜(감사), 윤광배 · 박선영(감사), 이강송 · 채해림(십일조), 이강태 · 김길엽(감사), 이동환(십일조), 이원재(생일), 이재명 · 김은해(나리 미국 변호사합격), 이종근(하나님 은혜), 장현순(감사), 정란경(십일조), 채수원(범사), 채수일 · 김경숙(범사, 생일), 최경자(주님 은혜), 최영철 · 김애련(범사), 최정옥(범사), 하지영 · 권선영(생일), 한현옥(감사), 홍수화(십일조), 무기명 7명(감사)

**지정헌금:** 김병태 · 김수미(탈북자지원), 함천진(동티모르선교)

## 예배와 집회 안내

| 부 서     | 일시 및 장소            | 성경 말씀         | 설교 제목                 | 설교자     |
|---------|--------------------|---------------|-----------------------|---------|
| 유치부     |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 누가복음서 11:9    | 구해요! 찾아요!<br>문을 두드려요! | 이동환 전도사 |
| 어린이부    | 주일 09:30 장공채플실     | 누가복음서 11:9-13 | 구하라! 찾으라!<br>두드리라!    | 최고권 전도사 |
| 중고등부    | 성공회 교환예배 참석(1부 예배) |               |                       |         |
| 경청(청년)  | 주일 14:00 장공채플실     | 방언으로 말하는 것    |                       | 박선교 목사  |
| 화요아침기도회 | 화요일 10:00 소예배실     | 여신도중보기도회      |                       |         |
| 금요기도회   | 금요일 19:30 미래를여는방   | 생명평화기도회       |                       |         |

## 주요예배 (6월 12일 본당)

|                    | 아침예배(오전 11시)                               | 저녁예배(오후 7시 30분)                                   |
|--------------------|--------------------------------------------|---------------------------------------------------|
| 인도<br>오르가니스트<br>찬양 | 배영호 목사<br>이재림 집사<br>다함께                    | 배영호 목사<br>권정원 집사<br>다함께                           |
| 송영                 | 오르가니스트                                     | 노아콰이어                                             |
| 예배부름               | 인도자                                        |                                                   |
| 찬송                 | 290장(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183장(빈 들에 마른 풀같이)                                 |
| 알리는 말씀             | 인도자                                        |                                                   |
| 기도                 | 서원순 권사                                     | 안덕균 집사                                            |
| 성경봉독               | 시편 118편                                    | 사도행전 19:21-41                                     |
| 특송                 | -                                          | <b>주여! 나를 위로하소서</b> (백경환 편곡)<br>노아콰이어(지휘: 박수길 장로) |
| 설교                 | <b>“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b><br>배영호 목사 | <b>“예배소, 은세공 장인들의 소동”</b><br>배영호 목사               |
| 찬송                 | 407장(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288장(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 축도                 | 목사                                         |                                                   |
| 후주                 | 오르가니스트                                     |                                                   |

### 다음 주일 말씀

6월 16일(성령강림 후 첫째 주일)

성경: 구약(출애굽기 3:1-15)  
서신서(로마서 11:33-36)  
복음서(요한복음서 3:1-8)

설교: ‘하나님은 관계다.’ 공미화 목사(재한독일어권교회)